박근혜 '국정원 상납' 공개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 내일 출석 통보
국정농단 혐의 기소 이후 첫 소환 통보
이원종 前 비서실장 같은 날 불러 조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수사 기관 조사에 응한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그리고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들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 외에도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 데모 지원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이와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의 청탁을 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이권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고, 공범은 구속기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 구조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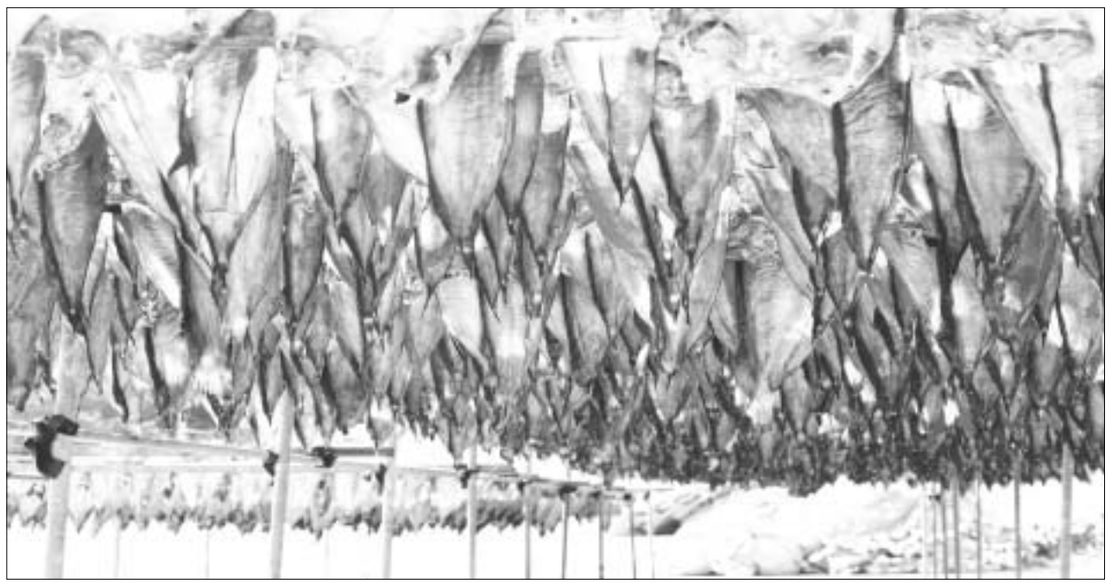
이와 함께 검찰은 이원종(75)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날 오전 9시 30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 등은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피의자 신분인 점은 분명히 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남해 '물메기 말리기' 20일 오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은점마을 방파제에는 어업인들이 겨울철 주 소득원인 남해안 특산물 물메기를 말리고 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11곳 적발

광주시는 20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B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나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F, S, W 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집단급식소나 단체급식 납품업체, 대형마트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영암 오리농가 AI 검출…고병원성 오늘 판명

긴급 방역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4만1300수를 사육하는 해당 농가는 지난 10일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인 영암 소재 종오리에서 분양된 역학 대상농가여서 고병원성 판명 여부가 주목된다.

고병원성 여부는 21일께 정밀조사를 거쳐 판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초동대응을 위해 기동방역기구반, 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현장 차단방역 총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토록 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이내에는 오리농가 2호 4만2000수, 3km이내 12호 55만수(오리 7호 16만3000수, 닭 5호 38만7000수), 10km이내에는 153호 197만6000수(오리 50호 52만4000수, 닭 94호 145만2000수)가 사육중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미국서 25년전 냉동 수정란으로 출산 성공

미국 여성이 25년전 냉동된 수정란으로 아기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지금까지 냉동 수정란을 이용한 출산 중 세계 최장기록이다. 기존 최장기록은 20년이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테네시 주에 거주하는 티나 깁슨(26)이란 여성이 25년전 냉동된 수정란을 이용해 지난 11월 25일 건강한 딸 에마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정란은 자연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없는 부부를 위해 기증됐으며, 1992년 10월 14일에 냉동됐다.

티나 깁슨과 남편 벤저민 깁슨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셔널 난자기증센터로부터 25년전 냉동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킬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다고 밝혔다. 티나 깁슨은 "그 때 내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수정란과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난자 나이는 상관없었다"고 덧붙였다.

내셔널 난자기증센터의 난자 책임자인 캐럴 소머펠트는 "수정란의 냉동 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기 출산 성공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셔널 난자기증센터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종교기반 시설이다.

냉동 수정란은 체외 수정한 난자를 영하 196도 이하의 액체질소로 얼린 것을 말한다. 의학계에서는 냉동 수정란을 '스노우 베이비(snowbaby)'란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냉동 수정란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은 약 75%이다.

예멘 내전서 사우디·이란 충돌 우려 고조

미국의 외교적 역할이 부재한 가운데 예멘 내전을 둘러싼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충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전통적으로 외교적 노력에 의해 완화됐지만 최근들어 미국 정부가 완강하게 사우디 편을 들면서 공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 4일에 이어 또다시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표적이 수도 리야드의 사우디 왕궁이었다.

사우디 정부는 미사일을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후티 반군이 리야드 국제공항을 향해 쏜 미사일을 이란이 제공했다는 주장을 내 놓은 지 며칠 만에 단행됐다.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의 양대 맹주이자 정치·종교적으로 앙숙 관계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인 예멘 정부를, 이란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지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쏜 미사일이 이란에서 제작됐다며, 이란이 예멘 등에서 유엔 몰래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주장했다.

스카이뉴스는 후티 반군이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은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후티 반군 미사일 제공설을 일절 부인했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후티 뒤를 봐준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사일 성능의 정교함 때문에 이란 연계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서 관광버스 사고로 12명 사망

멕시코 동부 마야 문명 유적지로 향하던 관광버스 한 대가 19일(현지시간) 갑자기 2차선 고속도로 위에서 전복하면서 관광객이 최소 12명이 숨졌다.

버스는 당시 툴룸에서 110마일 남쪽으로 위치한 착초벤(Chacchoben) 지역의 마야 유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도로는 마른 상태였고 다른 차량과의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이애미를 출항한 미국 크루즈 관광선회사인 로얄 카리비언 크루즈 선사는 성명을 발표, 이 회사 소속의 크루즈선 2척의 승객들이 전복사고를 낸 버스에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들이 모두 크루즈 승객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으며 사망자들의 국적은 확인 중이다. 부상자들도 다수 발생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는 미국인 7명과 스웨덴인 2명 등이다.

미국인 크루즈선 승객 한명은 이 버스가 마야 문명으로 가던 중 비도 오지 않는 마른 도로 위에서 갑자기 전복했으며 다른 차량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